교회소식 |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오중보기도 - 매일 정오 12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1. 환영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릴루엣 원주민 선교 협력 감사
릴루엣 원주민 밴드 단기선교를 위해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 8월 예배안내
- 새벽기도회 : 13일(화) - 8월 17일(토)까지 쉽니다.
- 수요기도회 : 14일(수), 21일(수)까지 쉽니다.

4. 교역자 휴가
- 담임목사 : 12일(월)-18일(주일)까지

▶교우소식
■ 다과 : 한주연집사 가정 / 다음 주 : 김성욱성도(유지연집사) 가정

▶8월 목회일정
■ 8/25(주일) 성찬예배
■ 8/26(월)-28(수) 새 학년 삼일 저녁기도회

▶2019년 여름 사역일정
- 8/23(금)-25(주일) Youth 다니엘목장 연합수련회 / 나나이모

■예배위원안내

날 짜	1부 기 도	2부	헌금위원	안 내
8월 11일	최슬비	천길영	장혜성	8월 박미란
8월 11일	김상훈	최종희	천길영	

■공동기도제목 12시 정오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를 위해	최종희집사(타티아나, 현문) 가정의 건강과 믿음을 지키소서

섬기는 사람들		협력 선교지 및 선교사	
담임목사	정 병 완	캐나다	릴루엣 원주민(이준호 선교사)
부목사(유스)	김 상 훈	북 한	First Steps(수잔 리치 Susan Ritchie)
전도사(키즈)	장 호 선	에디오피아	Petros Network
전도사(찬양)	박 청 아		

선한 이웃 선교로 통로가 되는 나무십자가 공동체

2019년 신앙주제

내 백성을 위로 하라!
Comfort my people.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주 일 예 배

제 7권 32호 2019. 8. 11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2시
신앙고백 (Confession)	사도신경	
찬 송 (Praise)	찬송가 199장	경배와 찬양
회중기도 (Prayer)	최슬비자매	천길영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교회소식 및 성도의 교제	
선교간증 (Testimony)	릴루엣 원주민 선교팀 (장혜성집사, 정은수학생)	
다음세대 축복기도 (Blessing)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봉 헌 (Offering)	찬송가 199장	
말씀선포 (Sermon)	사도행전 16:1-5(신약 215쪽)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정병완목사	
*파송찬양 (Closing song)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축 도 (Benediction)	정병완목사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교회학교예배
매일(화~토) 오전 6시 "에스겔 강해" 인도: 담당 교역자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14일 21일 기도회는 쉽니다 인도: 담당 교역자	**주일 오후 2시** Kids(드림, 비전목장) Youth(다니엘목장) 인도: 담당 교역자

나무십자가한인교회
WOODEN CROSS KOREAN CHURCH
Tel. 778.871.7740 / www.vanwckc.com
교회 : 1460 LANSDOWNE DR. COQ
쉴만한 물가 : 2288 ELGIN AVE PQ. COR

♣ 릴루엣 원주민 선교를 다녀와서 ♣

신용진 -우리 선교팀 식사도 마음에 부담이었고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 자란 그들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 고심되었지만 생각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해주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맛있다는 말로 격려해 주셔서 힘든 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좋은 반응을 얻고 건강히 돌아오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같이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은혜의 기회를 내년에는 꼭 느껴보시기 권면합니다.

김만수 - 두 번째 가는 곳인데 과연 반겨줄까 걱정도 되고 부담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친절하고 기억해주고 함께 식사 할 때 그냥 상대에 대한 예의 이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헤어질 때 "너 두 달 후에 다시 올 거야?"라며 허그 해 주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상훈 - 원주민 선교 떠나기 일주일부터 몸이 너무 아팠지만 죽어도 간다는 심정으로 떠난 두 번째 선교,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모든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도 잘 준비된 선교였습니다.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고 도와주고 초대해 주셔서 원주민의 삶을 조금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마음껏 복음은 전하지 못했지만 원주민의 마음에 문을 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오라고, 다시 만나자고, 먼저 이야기해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박청아 - 감사함이 큰 만큼 미안함과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아이들이 주는 따뜻한 눈빛과 체온이 자꾸만 나 자신을 반성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안아 주고 더 품지 못함이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겨주고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준 아이들과 밴드 사람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나는 극히 작은 부분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 영광♡이요.

김정미 - 부담이 아닌 행복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님을 알려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릴루엣 땅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장혜성 - 생각 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너무 영리하고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들도 우리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였으나 금방 친해 졌습니다. 준비가 부족하였으나 서로 협력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고 잘 따라 와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잊지 못할 것 같고 벌써 다음 만남이 기대가 되네요^^

♣ 릴루엣 원주민 선교를 다녀와서 ♣

박미란 - 작년에는 다른 교회와 함께 가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올 해는 저희교회 가족들과 함께해서 훨씬 편안했고 더 친해 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가는 밴드임에도 호의적으로 대해주시고 고맙다고 카약도 태워주셔서 선교이지만 즐겁게 여행한 기분이 들어서 행복한 시간들이였습니다. 무언가를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할 때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에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은우 -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내년에는 조금 덜 더운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뿌듯했어요.

장주엘 - 동생(아엘)이 너무 울어서 시끄럽다가 슬펐어요. 수영을 친구들도 같이 했더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덥고, 재밌고,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최종희 -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친근하게 대해줘서 크게 힘들지 않아서 주님의 손길이 작용 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영어가 부족한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이나 어른들 우리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도 친해져서 좋았습니다.

김하람 - 아이들이 함께 웃고 활동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다음엔 더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정도요.

장호선 - 원주민선교에 함께 동참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마중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였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릴루엣을 땅 밟기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은수 - 두 번째였지만 저희 교회만 간 첫 번째 선교임에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 저희가 처음으로 발을 들이는 밴드에서 정말 호의적으로 저희를 대해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세아 -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뿌듯했어요. 내년에는 친구들과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류현태 - I'm happy for the opportunity. I got to help kids learn.

문경화 - 캠프팀, 미용팀, 주방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협력을 이루어내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김규리 - 처음으로 선교를 가는 거라 여러 가지로 걱정이 있었는데 밴드에서도 호의적이고 재밌는 일도 많아서 좋았고, 다음에 간다면 아이들과 더 친해지도록 노력하고 싶어요!